

새 아 침 지 상 범 석

“나를 버리고 남과 조화”

인 허 스 님 (월정사)

· 1916년 전북 정읍 출생
· 1939년 속가형 탄허스님의 뒤를 이어 한암스님에게 시이계 받음
· 1945년 한암스님 을 은사로 비구 계 수지



새해를 맞이하는 길회는 누구나 다 새롭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는 것 또한 새삼스럽습니다. 늘 하던 일 그대로 하고, 늘 있던 자리를 왔다갔다 하게 되지만 그래도 뭔가 변해야 한다는 자신도 모르는 욕구가 생기는 때도 새해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 하느냐. 이것은 어려운 것 없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결국 우리 마음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다루고, 육하고 아용다용 삼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시끄러워지고 온갖 병폐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살길 바라지만 어디 뜻대로 됩니까. 그렇다고 되는대로 산다면 그건 더욱 나쁜 죄업을 짓는 것밖에 안되고, 그러면 뜻대로 안되고, 되는대로 살 수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한 생활을 하며, 이치에 당도록 살면 곧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어디 있느냐. 욕망을 알면 그게 행복이지 무엇입니까. 부처님 법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데서 법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저 본수에 맞게 만족하게 살아 보세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늘 허약하게 되고, 아무리 없어도 다 갖다주고 생각하면 편안해 집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뿌리를 살아 먹고 살아도 내 전생의 업이 이런가 보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그게 곧 행복이죠. 자기가 있는 자리는 인연이 닿아 있는 자리니 불만 갖지 말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나 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작년에는 죄만 짓고 불평만 늘어 놓고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으니 올해에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축할 줄 알고 나를 버리고 남을

스스로 대한 수련이 잘 된 상태에서 사리와 이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산공과 기 물이 내뿜어 되고 빗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그 근본지라는 하나이며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때에는 부증불감입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도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공부에 정진하고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옆에서 별 소리를 다 해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일로매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하리도 아프고 발도 저리고 온몸이 부서집니다. 그것도 물러야 합니다. 그러야 제대로 된 기도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 할재력이 없어 매사를 조심하지 않는 것도 큰 범입니다.
옛날 조주 땅 속령봉에 태진선사가 있었는데 한뢰지가 태진선사를 시험하려고 기생 흥련으로 하여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흥련은 태진선사를 찾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태진선사를 유혹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흥련이 태진선사 앞에 가 읍면서 '스님을 파계시키려 왔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

‘남을위해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새해 열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모두가 지상낙원입니다

“나쁜버릇 오래되면
부끄러움 모르게 되고
마침내 몸과 마음이
병얕이 악순환 계속”

말은 일 최선 다하고 만족하면 저절로 행복

그것이 보살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세요. 직장인은 직장 일에, 학생은 공부에, 주부는 가정 일에 각자 맡은 일에 온 힘을 기울여 보세요. 그게 바로 뜻대로 사는 길이고,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요즘 세상이 온통 난리를 만난 것 처럼 시끄럽지요. 그것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사람들이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사회가 너무 명예와 돈을 찾아서 그런 겁니다.
어디 이것 뿐만이냐. 올해에는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했습니다. 이렇게 걱정 근심 재앙이 자주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단결과 화합이 안되고 책임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조화가 잘 돼야 개인도 집안도, 나라도 다 잘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를 맞는 보람이 있는 것이지 항상 살던대로 살면 나 이 먹는 굶이 있었습니까. 지상낙원 극락세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모두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열면 여기가 극락세계고 지상낙원이 되는 겁니다.
‘낙월삼십일(落月三十日)에 열라가 자귀왕(自歸王)이란 말이 있습니다. 낙월삼십일이란 일년이 다 지나간 마지막 날이란 뜻이고 열라가 자귀왕이란 열라대왕이 와서 자연히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열라대왕이 와서 항복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헛되어 살았구나 하고 자탄하고 있는 중생들이 많겠지만 자꾸부터라도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며 죄업을 닦도록 노력해 보세요. 열라대왕에게 항복받은 사람은 자신 스

경정도 부처님께 임어야 합니다. 전생에 지은 업엔 깨끗이 씻고 금생을 베풀 지고 살다보면 내생에는 분명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종자를 심어야 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되겠다는 생각으로든 공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보조국사 말씀에 신유공덕모(信爲功德母)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믿는 마음이 견고해야지 견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세태가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문화가 아무리 발달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속은 캄캄해지고 있어요.
도인 나는데 너무 권태도 줄지 않은 법이거든요.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이라는 말도 있듯이 세상이 너무 편하다 보니 편안함에 익숙해져 조금만 어려워도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게다가 요즘 사람들

니 이대로 돌아가면 큰 벌을 받게 된다'고 하며 스님께 도움을 청하였으나 태진선사는 흥련의 치맛자락을 끌치고 다음과 같은 계승을 했습니디.
十年不下(十年不下) (십년불하) (속령봉)
觀色觀空(觀色觀空) (관색관공) (속령봉)
如河一滴(如河一滴) (여하일적) (조계수)
自覺紅蓮(自覺紅蓮) (조주홍련) (일업중)
축령봉 내려가지 않기를 십년 베풀 보고 공을 보니 색이 곧 공인데
어찌 조계의 풀 현 방울을 흥련의 일사구에 떨어뜨리겠느냐
공부는 근본지리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태진선사는 공부를 통해 색(色)이 곧 공(空)이라는 진리를 통달했기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色)은 탐욕도 될 수 있고 방탕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空)임을 깨달아 집착과 번뇌를 놓고 선정(禪定)에 들어

보세요. 이것은 오직 수행과 깨우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禪)과 정(定)에 대해 말하면서 그 근본지리를 알지 못합니다. 선(禪)이라 함은 평범이 일어나지 않음이고, 정(定)이라 함은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본성이란 무생심(無生心)이며, 정리나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해서 정(定)을 얻은 사람은 비록 범부라 해도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파안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흔들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잘 하면서도 중생들은 뭐가 답답한지 토정비결을 보느니, 또 굶은 일이 있으면 액땀을 한담시고 굶을 하고 잠을 치고 그런다고 합니다. 제미로도 하고 잘 안되니까 한다고들 하는데 인생을 제미로 삼니까, 또 잘 안된다고 잠치면 안되는 일이 잘 됩니까.
새해를 맞아 절치러 가느니 차라리 부처님께 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발원하는 것이 백번 나야요. 자기가 지은 죄업은 파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님 제자중 사마유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내방에 걸렸습니디. 공자님같이 덕행이 뛰어난 사람의 제자가 어떻게 내방에 걸릴 수 있습니까. 그 제자가 공부를 못하고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전생에 지은 죄업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장보살도 내세에 좋은 업보를 받으려면 덕을 닦고 실천하라 했습니다. 금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업이 두터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치고 재를 지낸다고 그 업이 소멸 되겠습니까.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지식과 판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불자들도 부처님 말씀을 안 믿고 절정을 찾아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부가 덜된 탓일 것입니다. 나쁜 것임을 알았으면 고치는게 당연한 도리니 하나 풀씩 고쳐 나가야 합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행하는 선업이 곧 스승이고 나쁜 일을 하

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고쳐 나가면 그 역시 스승인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선업도 악업도 모두 스승인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기본적으로 신명나는 일 많고, 팔 흠될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어야 하지만 어디 욕심대로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즐겁게 살 수 없는 것은 연인이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잘못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자신을 바로 보며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쁜 버릇이 오래되면 점점 부끄러움을 모르고 마침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한 개비의 작은 불이 능히 태산을 태울 수 있고, 한 생각의 약한 마음이 하늘을 삼킬만한 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서리도 쌓아 다져지면 굳은 얼음이 되는 것처럼 한 생각 하나의 행동에 자신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 법에 따라 우리 모두 부처님같이 새해를 맞이합시다.

부처님 땅에서 성도절을

해초여행사가 후원하는 현대불교 인도 성지 순례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4대명절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인 성도절을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맞이하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80생애를 고스란히 간직한 인도성지는 부처님의 체취를 온몸으로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이 무엇인지 일깨워 줄 것입니다. 1996년 새해,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영태한 인도성지 참배로 큰 감동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 성 지 : 인도·네팔 (녹야원, 보드가야, 라즈기르, 바이살리, 루시나카라, 기원정사, 롬비니 등)
■ 일 정 : 9박 10일
■ 참가비 : 155만원 (여권 인지도 45,000원 별도)
■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 출발일정
· 1차 : 96. 1. 17
· 2차 : 96. 1. 24
· 3차 : 96. 1. 26
· 4차 : 96. 1. 31
· 5차 : 96. 2. 4
■ 여행조건
· 1급호텔 기준 2인 1실 (성지지역은 현지 최고 수준)
· 전일정 식사 포함 (기내식 포함) 성지 지역 : 한식제공
· 해외여행보험, 공항세, 인도·네팔 비자 수수료 포함
· 인도성지 전문 안내원 동행